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설립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 Ⅲ



박인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3대 회장

그 후 설비공제조합 개정 법률안이 드디어 12월 21일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제 시행령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96년 3월 쯤이면 창립총회와 업무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창업 준비에 몰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앞길에 또 하나의 큰 장벽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찰나 건교부 경제국에서 보자는 연락이 와서 우선 정○○ 과장실을 방문했더니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제조합 설립이 어렵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며 되레 반문을 하면서 “감사원에서 설비공제조합 인가를 해줘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공문도 오고 전화도 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어렵고 천신만고 끝에 국회에서 모범이 통과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지금에 와서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올 지경입니다.” 하면서 설득을 하고 시행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정○○ 과장으로부터 “이 문제를 빨리 수습치 않으면 시행령 공포도 기약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얘기해 봐야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과장님께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릴 테니 시행령 개정만 국무회의에 통과되게끔 추진해 주십시오. 감사원 문제는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해결을 볼 터이니 너무 걱정마시고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린 후 곧바로 부랴부랴 뛰어다니면서 감사원 강○○ 국장과 친분 있는 분을 찾으려 하면서 최상홍 회장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곧바로 우리 자재업계의 스파이렉스 사코 박인순 사장과 동창이면서 가까운 친구라는 얘기를 듣고 강○○ 국장, 박인순 사장, 최상홍 회장, 감사원 과장 등 몇 분에서 조선일보 호텔 일식부에서 저녁 만찬 겸 좌담을 새벽까지 이어가면서 설득도 하고 충분한 이해를 구했으나 별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강 국장은 몇 개월 전에 전문조합 감사를 하면서 설비업계 상황을 다 파악했는데 지분 17만5천 여좌에 자본금 1,442억원으로는 설비조합 운영도 문제지만 회원들의 수혜 혜택이 전문조합에 비해 턱없이 적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요지의 판단이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다시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기야 ‘그 어렵고 태산같은 준령을 몇 개씩이나 넘었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는가, 처음부터 주변에 유관기관

이나 유관단체 등 어느 한 곳이라도 내 편이 없었고 반대만 당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진 상태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론 많은 걱정을 하기도 했으나 그동안 수많은 일에 도전을 해보아서 인지 자신감도 생기고 희망을 가지고 뛰고 또 뛰면서 마지막 영설의 꿈을 이루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고비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실익을 거둘 수 있겠는가, 이렇게 힘든 문제가 어디 한 두 가지 뿐이겠는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멀리도 보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 보라'는 옛말이 있듯이 설비협회 상근부회장이신 박성실 부회장에게 이러한 추진사항을 상의 드렸더니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부회장께서 감사원 김○○ 감사위원과 친분이 아주 두터운 사이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후 몇 차례 연락을 드리고 박성실 부회장, 박인구 회장과 같이 감사원을 방문해서 김○○ 위원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상담을 드렸더니 어느 정도 수공을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찾아뵙기도 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그 어려운 모범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하시면서 "이쪽 일은 내가 참작해서 잘 처리할 테니 그 쪽 일이나 잘 매듭지어서 추진하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 또 한번 감격하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큰 장벽이 없겠지' 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허허 웃었습니다. 우리도 해냈다는 자신감과 함께 '그토록 숙원이요 여망이었던 설비조합 설립이 현실로 나타나고 꿈이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바랄게 무엇이 있겠느냐'면서 혼자서 망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몇 개의 설비업체에서 공제조합 독립 설립에 반대를 하고 갖은 욕설을 퍼붓는 등 서슴지 않고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유인 즉, "전문조합보다 좌수의 가치가 떨어졌으니 이것을 누

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 줄 것이냐?"면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일부 많은 업체에서는 "보중에 필요한 연대보증업체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누가책임지고 해결에 줄 것인가?" 하면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던 점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합 설립을 추진하면서 가장 힘든 때였었고 마음과 가슴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면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누적되어 가고 결국 제 몸을 제가 제어하지 못하고 병까지 생긴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느 한 회원사라도 제대로 격려와 성원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오직 책임감과 충성심으로 내 한몸 불사르자' 하는 마음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일을 추진하기 시작 전 부터 뒤에서 몇 분이 "박인구 저 사람이 무슨 재주로 저 일을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어림없는 소리!"라고 빈정대면서 "두고 봐, 저 일이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하면서 비하하고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정신적으로 많은 압박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어디 한 번 해보자. 내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겠지, 어디 한 번 끝까지 해보자'면서 오기가 생기더군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내일의 일은 오늘 저녁에 계획하고, 일목요연하게 작전을 세워 끝까지 뛰고 또 뛰면서 일을 추진하다보니 그 어렵고 힘든 고지를 하나씩 또 하나씩 넘어가면서 '오늘의 성공을 거둔 보람이 이제 그 결실을 맺는 결과다.' 이렇게 자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창립준비와 업무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립준비와 업무개시 준비가 착착 진행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도 초대 이사장으로 내

정된 박원석 부산국토관리청장이 잔무 업무처리 관 계로 늦어지면서 일이 다소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초대 이사장이 결정되고 선임되었 으니 많은 기대를 하면서 실무 전반에 걸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추진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추진업무에 필요한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어 건교부 내 2층 사무실 한 칸을 내주어 여기서 실무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전통이랄까 일종의 미신에 가깝 다고들 하는 고사. ‘이것은 큰일을 시작할 때나 개 업을 할 때 의례껏 지내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우 리도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룩하고 성공 했 지만 조합의 큰 행운과 발전을 축복하고 그동안 정 신적인 피로도 풀고 위안을 하기 위해서라도 임시 사무실이지만 고사를 지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에 따라 아주 거창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재를 올렸 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유상열 차관과 전임 장관이신 정중 택 장관(당시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하시고 이현 석 실장, 강윤모 실장 등 건교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시고 축하와 축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유상열 차관께서는 “우리 추경석 장관님께서는 설비조합 탄생을 축하를 하시면서 그동안 많은 어 려움을 극복하고 조합 설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박인구 회장께 치하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고사 떡 맛이 좋은 것을 보니 설비조합이 크게 성공하고 발전할 것 같다”는 농담 섞인 얘기를 하시자 한바 탕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립 준비와 업무개시 준비가 많이 이루어져서 창립기념식 겸 업무개시 날짜까지 거 의 정해진 상태에서 인사문제로 많은 고민에 빠져 들게 되었지요. 임직원 정원을 110명으로 예상했

으나 아직도 모든 것이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 는 105명 선으로 정하고 부족하면 추후에 보강하 자는 계획을 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에서 설비조합 설립 정보를 입수하고 계속해서 청 탁과 이력서가 들어오니 감당을 못할 지경이었습 니다. 매일 자고나면 건교부 유○○ 차관께서 보 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가서 뵈게 되면 차관님께서서는 “박 회장 또 국회 아무개 의원 들께서 이렇게 이력서와 청탁이 있으니 어떻게 하 면 좋겠는가?”하면서 반문을 할 때 저도 당황하여 거절을 하곤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 인사조직을 새로 짜야 하는 그 어려움과 정해 진 창립일자 10여일 전에 청와대에서 임원될 분을 받아줘야겠다는 통첩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1996년 5월 9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역사적인 대한설비공제조합 창립총회를 마치고 업 무개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설비공제조합이 설립됨으로써 3,100 여 설비건설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재정 및 금융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업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 한 우리 설비건설업체의 수주 시공에 따른 보증 및 용자업무와 그 외 공제 사업 등 설비건설업에 실질 적인 도움이 되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게 되 었습니다.

많은 우려와 우여곡절 끝에 설립된 설비공제조 합은 20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설비건설 인의 보증기관으로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 습니다. 

박인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3대 회장님의 기고는 이번 호로 마칩니다.